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행정절차 단축 인허가 '속도'

산지협의 6개월 단축...내년 8월까지 최종 조성계획 승인 목표 총 3천700억 투입...2029년까지 골프장·복합 관광시설 조성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산림청 산지협의 절차 단축으로 인허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산지협의 절차 단축이 최근 정부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채택돼 최종 확정됐다. 산지협의 절차 단축의 주요 내용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의 간소화다.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은 심의를 면제하고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심의해 결과적으로 산지협의 절차를 약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남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신청서를 제출한 광양시는 영산강유역

환경정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완료하고, 현재는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산지협의 기간 단축 확정으로 인허가 속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산지협의가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후 내년 8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LF스퀘어' 개장 당시 광양시에 제출한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2019년 (주)LF네트웍스가 사업을 제안

했으며, 사업 전담을 위해 100% 자회사이자 현지법인인 (주)LF리조트를 설립했다. 총사업비 3천700억원을 2029년까지 투자하며,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에 면적 22만4천486㎡ 규모로 관광체험시설, 숙박시설(리조트) 230실, 골프장 27홀 등 복합 휴양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이번 경제장관회의의 안건 채택은 구봉산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광양시와 (주)LF리조트가 협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시가 추진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산지협의 절차 단축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서 약 6개월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감도. (광양시 제공)

순천시, '민생안정대책반' 가동...지역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80% 상반기 집행...지역 체감경기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순천시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년 예산 신속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추진한

다. 내년 전남도 최대 규모 본예산으로 확정된 1조4천899억원 중 80%를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실질적인 내수진작과 지역 체감경기 개선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상사업은 절차에 따라 빠르게 추진하되, 연말 대책회의를 통해 발굴될 긴급 민생안정 사업에 대한 예비비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급·이자·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순천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특례보증은 내년부터 2배로 늘려 총 3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순천사랑상품권 1천200억원을 발행해 지역 내 연중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에는 운송원가 상승으로 힘들어진 관내 버스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될 노후 아파트 67개소에 시비 37억원 규모의

공통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동절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로당에는 식재료 구입을 위해 1개소당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불확실한 정치, 경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대비책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 만큼, 내년 초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 울포해수욕장서 새해 해맞이 행사

100m 뱀 형상 달집태우기 행사·드론쇼 등

보성군은 25일 "오는 2025년 1월1일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해맞이명소 울포해수욕장에서 푸른 뱀을 뜻하는 을사(乙巳)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해맞이 행사는 보성라이온스 클럽이 주최·주관하며, 힐링 에너지로 새해를 여는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보성군립국악단의 공연과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700여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 쇼 등을 진행한다. 부대 행사로는 방문객들을 위한 떡국 무료 나눔 행사, 차 시음 부스, 새해 희망 쓰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해맞이 행사에는 보성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길이 100

m의 '뱀' 형상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주차 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 인근에 9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볼거리 가득한 행사인 '2025년 보성 새해 해맞이 행사'에 함께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에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 각 읍면에서도 개별적으로 소규모 해맞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이병노 담양군수, 자매결연도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대구 달성군·서울 성북·용산구 등 9개 지자체

담양군은 "최근 이병노 담양군수가 국내 자매결연도시 9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은 앞서 대구시 달성군, 서울시 성북구·용산구, 대전시 서구, 충남도 계룡시, 충북도 제천시, 전남도 신안군, 광주시 남구, 경기도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에 따라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도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연말 자매결연 지자체에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결심했다"며 "내

년에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담양=정승규 기자



장흥군-나주병원, 정신건강센터 위·수탁 협약 여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내년부터 3년간 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립나주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2024년 12월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3년간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하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2007년 7월에 개소한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진단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립나주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내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여수시는 25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9개 지자체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여수시로 돼 있는 17세 이상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주민등록증' 또는 'IC주민등록증'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R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실물 주민등록증

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며,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면 발급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가 1만원(IC칩 비용 5천원, 재발급 비용 5천원)이 소요되나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수시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신원 확인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 '10억 달성'

전년비 2배 ↑ ...모금 창구 다각화 주요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며 누적 모금액 10억원을 달성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6억7천만원이며, 모금 건수는 5천7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천866건의 모금 건수 대비 세 배 이상, 3억3천만원의 모금액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 사업 중 지정기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기부자 효용감을 높여 이러한 실적을 이뤘다. 특히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1'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지난 1월 모금을 시작해 목표액을 달성한 후 8월27일부터 전국 최초 소아과 출장진료 사업(사진)을 시행하고 있다. 곡성 소아과 출장진료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모금과 사업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며, 기부자와 지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후속 사업인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의 모금을 이 현재 70%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곡성사랑응원단 8천여명 모집을 통해 단골 기부자를 확보하고, 연말정산 시즌 답례품 증량 및 추가 증정 이벤트로 기부자 혜택을 강화했으며, 민간플랫폼(위기브,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입점을 통해 모금 창구를 다각화한 점도 올해 기부금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조상대 곡성군수는 "곡성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준 8천여명의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정기부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